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33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329)	봉헌 (216)	성체 (174)	파견 (441)
---------	----------	----------	----------	----------

제1독서 | 신명 30,10-14  
 화답송 | 시편 69(68),14와 17.30-31.33-34.36 그리고 37(◎ 33 참조)  
 ◎ 가난한 이들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  
 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은 참된 구원 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  
 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  
 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  
 ○ 가난한 이들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떨치지 않으신다. ◎  
 ○ 하느님은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분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물려받아, 그분 이름을 사랑하  
 는 이들이 그곳에 살리라. ◎  
 제2독서 | 콜로 1,15-20  
 복음환호송 | 요한 6,63.68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  
 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음 | 루카 10,25-37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6/30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7/7	유 요한	이 요한	박 다니엘
7/14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7/21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11	\$66	\$4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7/20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8/24	유 요한/ 유 마리아
7/27	손 아놀드/ 손 켄마	8/31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8/3	이 글라라/ 장 글라라	9/7	홍 마르코/ 홍 아녜스
8/10	박 벨라렛다/ 정 루시아	9/14	김 요아킴/ 고 안나
8/17	이 요한/ 이 마틸다	9/21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하느님께 가는 길

-김미희 마리스텔라 | '어머니들의 기도(Mothers Prayers)' 한국지부 부회장-

4년 전 여름, 로마에서 열린 '어머니들의 기도' 콘퍼런스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는 2년마다 각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일주일간의 콘퍼런스를 가집니다. 일정중에 교황님을 뵈 수 있는 바티칸 광장 수요일 일반 알현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 단체석은 광장 맨 앞자리에 배치되어, 교황님을 아주 가까이서 뵈을 수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강론 시간 외에 따로 초대된 아픈 이들과 신랑 신부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느라 피약별 아래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교황님께서 성당 안으로 들어가셨고, 광장도 텅 비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광장을 벗어나 베드로 성당 쪽 긴 줄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30여 분이 지났는데, 우리 단체석 쪽을 보니 몇몇 어머니들이 아직도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교황님'을 연호하고 있는 스페인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황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스페인 어머니들을 보면서 소화 데레사 성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느님께 가는 길은 이층에 간 어머니를 찾아 우는 아기처럼 하면 된다."

지난 5월 30일 일본의 어느 소도시, 신자 수 40여 명인 조그만 성당에서 여섯 명의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임 신부님의 배려로 저희가 기도를 소개하며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산속에 사는 목수의 아내라는 한 어머니는 성당에 오려면 산에서 내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8월 1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회의는 오늘 7월 14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 후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공동체 모임: 매주 셋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

오는 모임은 7월 21일 미사 후 친교실 입니다.

이번 모임은 '순희송 베네딕토 신부님의 가톨릭 신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 2부' 로 묵상하시고 준비하시어 나눔을 갖겠습니다.

web: <https://www.youtube.com/watch?v=4OhWtpeiiBo>

영적 예물 봉헌 카드: 전요아킴 신부님 영명축일(7월 26일)

지난 주 박 벨라렛다 자매님이 나누어주신 영적예물 봉헌카드에 기도하신 내용을 기재하시고 7월 20일 까지 성당 입구에 비치된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려와 버스를 타고, 다시 기차를 타고 역에 내려 성당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다른 평일 미사는 아침 7시라 어렵지만, 오전 10시 수요일과 주일 미사에는 반드시 참석한다는 이 어머니는 어느 날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성당까지 6시간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미사는 끝났더라도 하느님께 가는 길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 '걸음걸음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였다'고...

얼마 전 읽은 <바이올린과 순례자>(마틴 슐레스케 지음, 니케북스)에서 저자는 피카소의 말을 인용합니다. "열세 살 때 나는 거장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저자는 피카소가 말한 '아이처럼'을 '유치한 퇴보가 아니라 성숙한 두 번째 천진난만'이라 표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루카 18,17)

엄마를 찾아 목청껏 우는 아기처럼, 멀어도 먼 줄 모르고 달려가는 아이처럼 주님께로 향하는 어머니들.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저는 성숙한 '순진무구' 믿음의 힘을 새롭게 배웁니다.

복음묵상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